

세계화 시대, 인류 공존의 해법

글_ 양용희_ 호서대 교수

지금 세계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99년 11월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을 반대하는 반세계화 운동을 시작으로 2000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프라하 IMF 총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SEM회의 등 국제적인 경제회의나 정치회의 때는 어김없이 NGO들의 반세계화·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8정상회의 반대시위에서는 시위자가 사망하는 등 신자유주의의를 둘러싸고 극단적인 대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반세계화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세계화 운동 확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반대자들은 주로 NGO들과 노동조합원들이다. 이들이 세계

세계화를 찬반 선택의 길보다는 오늘날 인류가 처한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세계화를 신자유주의의 경제 이데올로기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네트워크, 정보, 문화, 생태와 환경문제 등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세계화로 인해 시장 자본주의가 강화돼 국가간·계층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자본의 세계적 이동으로 노동의 응집력이 약화돼 노동탄압이 일어나며,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슈피겔》 지와의 회견에서 시장 자본주의의 전면적인 지배는 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21세기에는 경제성장보다는 재화의 사회적 재분배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세계화에 대해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가? NGO와 노동자들이 경계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동일시해야 하는가? 세계화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적 문제로 국한됐던 환경문제, 인권문제, AIDS문제, 테러문제 등이 이제는 한 국가나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의 경우 초국가적으로 공동 대처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도 지구의 재난과 전쟁, 환경파괴의 현장에서는 인종과 계층, 문화를 초월한 NGO들의 국제적인 연대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NGO들이 지구가 처한 가난, 재난,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연대를 필요로 한다. 자본의 세계화뿐 아니라 사회문제, NGO들의 활동현장과 자원개발에서도 세계화는 나아가고 있다.

인류공존 위한 인식 필요

이런 세계화의 현상을 시장, 정부, 시민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가? 세계화를 찬반 선택의 길보다는 오늘날 인류가 처한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세계화를 신자유주의의 경제 이데올로기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네트워크, 정보, 문화, 생태와 환경문제 등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국가, 인종, 문화, 지역을 분리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환경파괴, 자원고갈, 테러 및 난민의 증가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를 선택의 논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인류 공존과 평화를 위해 세계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